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박 은 민[†]

김 봉 환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사이트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 63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31명, 통제집단 32명으로 배정하여, 사전-사후 검사 설계로 진행하였다. 집단상담은 8회기로 구성되어, 각 회기별 90분씩 주 2회 총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여부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조절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은 우울감, 상태분노, 특성분노, 자아 존중감, 공격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의 정서조절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출, 가정학대, 정서조절, 집단상담

* 본 연구는 박은민의 박사논문(2008년 8월, 지도교수 김봉환)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은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140-742)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Tel : 02-710-9349, E-mail : roseunmin@yahoo.co.kr

최근 가정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 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의 학대 관련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 사례 중 79.6%로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 피해 사례 중 81.1%였다. 자녀학대 발생 빈도에서 학대가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10.8%로 나타났다.

가정학대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자녀에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세계를 만들어, 자연스런 발달환경을 박탈한다. 자녀는 부모와의 일차적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이런 기본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학대로 청소년은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은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가출을 선택하게 된다(전귀연, 배문조, 2001; 한상철, 이수연, 2003; Lidnsey, Kurtz, Jarvis, Williams & Nackerrud, 2000; Slesnick, Bartle-Haring & Gangamma, 2006). 청소년 가출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상당히 많은 가출이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등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정혜경, 안옥희, 2001;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Yoder, Hoyt & Whitebeck, 2001).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을 탈출형과 추구형으로 분류하여(Homer, 1973) 구분하던 과거의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다. 탈출형 가출은 가정 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는

경우이며, 추구형 가출은 쾌락과 모험을 추구하여 가출을 시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쾌락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한 추구형 가출을 시도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정폭력과 가정학대를 피해 탈출하는 탈출형 가출이 많음을 주장한다(Slesnick, et al., 2006; Sullivan & Knutson, 2000). 즉 가출은 새로운 문제 발생에 따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오랫동안 참아온 문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탈출이라는 대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임을 전문가들이 동의했다(Harman, Burgess & McCormack, 1987; Kurtz, Kurtz & Jarvis, 1991; Martinez, 2006). Lidnsey 등(2000)과 Slesnick 등(2006)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빈번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족 폭력이 청소년 가출 원인을 제안하고 있다. 전귀연 등(2001)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 모두 비가출집단에 비해 상습성 가출집단에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등(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측면은 가출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때문에 가출했다고 호소한 청소년은 16%~40%였으며, 성적 학대 때문이라고 호소한 청소년은 21%~60%로 조사되었다(Molnar, Shade, Krai, Booth & Walters, 1998; Slesnick, et al., 2006; Tyler & Cauce, 2002). Welsh 등(1995)의 조사에서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로 가출했다고 보고한 청소년이 81%였다. 특히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피해가 매우 빈번함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상철, 이수연, 2003; Slesnick, et al., 2006; Sullivan & Knutson, 2000). 가출 선택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상황 변화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가출 이후의 생활이 가정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출로 인한 변화는 가출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오히려 가출 기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Martinez, 2006).

가정학대로 발생하는 문제영역은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의 문제는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학대책임과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점이다(Briere, 1992). 이들은 부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신이 나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 받을 만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자녀학대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대로 야기된 인지적 왜곡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학대 피해 자녀에게 일생 동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미영, 2004; Brier, 1992).

학대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행동적 측면은 가정이 자녀에게 최초의 폭력 학습장소가 되어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정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가정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Pears & Capaldi, 2001; Renner & Slack, 2006).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에서의 폭력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공격성 강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정서적 영역의 문제는 부모에게 학대를 많이 받는 자녀일수록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이 높고(이혜련, 최보가, 1999), 부모의 지지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신호식, 김효심, 1998). 가정 학대 경험은 우울(김은경, 2008; 신혜섭, 2000; Wise, Zierier, Krieger, & Harlow, 2001), 불안(이규미, 1999; 강신덕, 1997; MacMillan, Fleming, Streiner, Lin, Boyle, Jamieson, Duku, Walsh, Wong, & Beardslee, 2001)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정학대를 보고한 개인에게서 불안, 분노, 우울이 증가하였으며, 불안, 분노, 우울, 낮은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다(Kriseten, Jennifer, Daphne & Molly, 2007).

학대 피해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억압된 분위기로 인해 정서를 억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하다(손경숙, 2007). 학대 피해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대처기제임에도, 주변 어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때 이러한 억압 기제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며 스스로를 보호해 왔다(고미영, 2004).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고, 억압된 분노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여 개인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기제가 된다(Bry, 1976). 부정적 기분 상태를 외부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내부로 주의를 돌리며

억압과 억제를 하면 역기능적인 증상들이 초래되어 부정적 기분이 더 심화된다(Scherer, Wallbott, & Schmitterfield, 1986).

이와 같이 자기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청소년들은 감정을 억압해버리거나 극단적으로 표출해버리고, 작은 자극에 휘둘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의도하지 않은 정서폭발 행동을 한 후 이들은 후회와 자책을 한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정서표현 갈등’이라 한다. 정서표현 갈등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Salovey와 Mayer(1997)는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정서조절이라 하였으며, Bridges 등(2004)은 어떤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정서조절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조절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하여 충동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상대방의 행위를 적의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는 왜곡된 인지 패턴 경향(Dodge, Bates & Pettit, 1990; Grus, 2003)과 내재된 분노와 적개심이 공격성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김정규, 1998). 이러한 왜곡된 인지 패턴 측면과 공격성 측면은 억압된 정서를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arni, 1999).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여 조절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지닌 정서 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의 개별정서를 다룰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강신덕, 1997; Mayer & Salovey, 1993). 정서조절은 긍정적·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정서적 각성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조율하는 능력으로, 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능력이 높으면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능력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다(Caspi & Moffit, 1993). 정서조절 능력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돕고, 또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이 습득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된다(김은경 등, 2007).

손경숙(2007)은 보호자의 양육거부나 학대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정서이해, 긍정적 정서표현 등 정서조절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양혜원(2002)은 아내구타 노출 아동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불안 정도가 낮아지는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위 같은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아동이거나, 직접적인 학대 피해가 아닌 간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거나, 한 가지 정서에만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대로 말미암아 억압된 환경 속에서 억압과 억제의 기제를 사 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성장하였다. 그

리므로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 과정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한 억압과 억제의 기제로 말미암아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공격적 행동을 발생시키므로, 프로그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정서 영역의 범위는 충동성을 촉발시켜 공격적 행동을 야기 시키는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당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서적인 요인을 추출한 후, 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들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방 법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보다 효과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단계에 따라 개발되었다. 김창대(2003) 모형은 변창진(1994), 박인우(1996) 그리고 Sussman(2001)의 모형을 참조로 4단계로 구

성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변창진(1994)과 박인우(1996)의 모형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에 대해 상담전문가들의 관심이 많지 않을 때, 교육공학 및 교육과정 분야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태도 및 정의적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김창대, 2002). Sussman(2001)의 모형 역시 원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행동’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 인력, 비용, 시설 등의 상당한 투자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담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이숙영,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변창진(1994)과 박인우(1996)의 모형과 Sussman(2001)의 모형을 참조로 모형의 장점들을 통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한 김창대(2002)의 모델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창대(2002)의 모델은 선행 모델들의 장점들을 통합하고 단점들을 통합한 가장 종합적인 모델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가장 적용 가능한 모형이라 고려되어, 이 모형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개발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 목표수립 단계,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3단계는 예비연구 단계, 4단계는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단계로 그림 1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이 모형의 절차에 따라 1 단계에서는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들의 요구 사정을 위하여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 53명과 일반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요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면접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가정학대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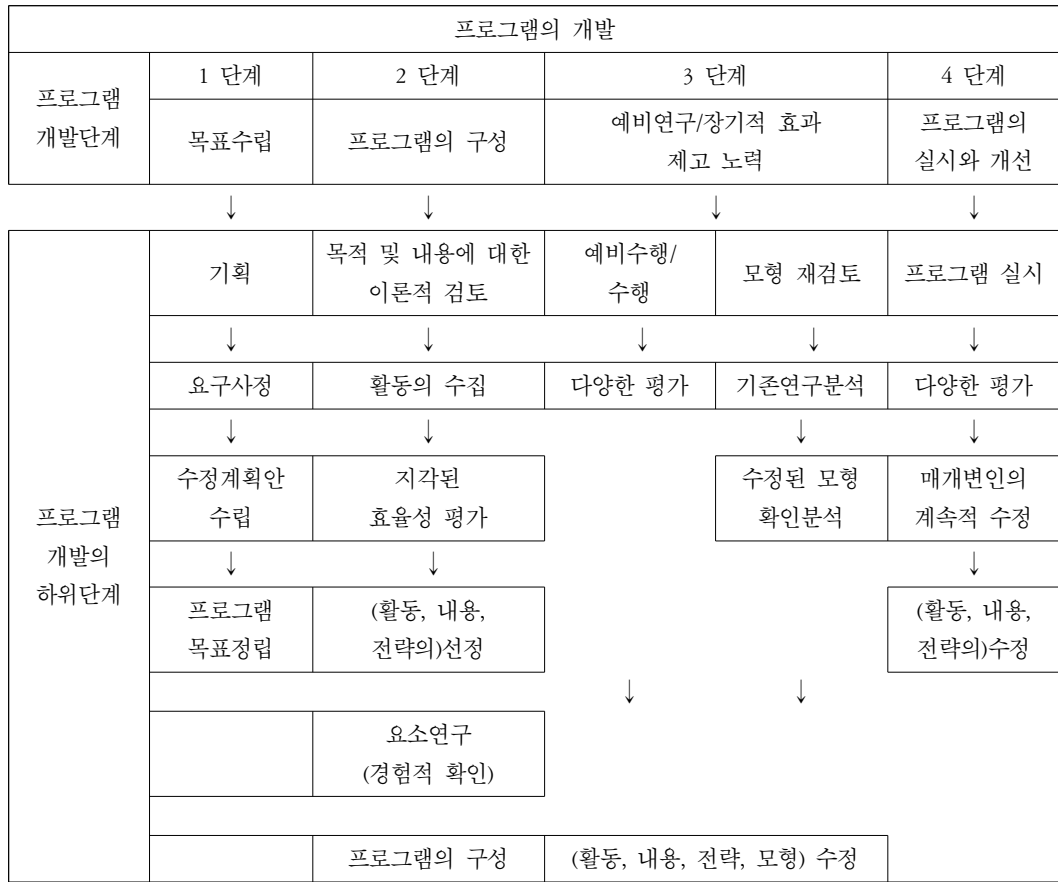


그림 1.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해 가출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요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범주화 한 후, 범주화 자료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정립하였다.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 목표는 첫째, 집단상담 진행자와 가출 청소년은 긍정적인 치료관계를 꾀한다. 둘째, 심리적 상처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며 양가감정을 다룬다. 셋째,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이 스스로 억누르고 억압하는 분노 감정을 이해한 후 적절

하게 표출하게 한다. 넷째, 감정에 대한 이해 및 표출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우울감 감소를 꾀한다. 다섯째, 정서조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공격성 감소를 꾀한다. 여섯째, 긍정적 강화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킨다. 일곱째, 미래 지향적이 되도록 돕는다 이다. 2단계에서는 요구조사 결과를 범주화한 자료와 프로그램 목표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예비실행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4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실시 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재수정 하였다. 김창대 램 개발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그림 2와 (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른 프로그 같다.

<p>1단계 : 목표수립</p> <p>① 기획</p> <p>② 요구사정</p> <p>③ 수정계획안 수립</p> <p>④ 프로그램 목표의 정립</p>	<p>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 53명과 일반 청소년 60명을 대상 요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감, 상태분노, 특성분노, 화역제, 화 폭발, 공격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요구 면접 조사는 가출 청소년 11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가출이유는 신체적 학대와 피방임, 성추행이었으며, 정서적 측면의 곤란은 양가감정, 분노억제, 분노폭발, 우울, 낮은 자존감 호소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학업 열망, 가족과의 재회, 경제적 독립을 나타냈다. 이러한 범주화 자료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정립하였다.</p>
<p>2 단계 : 프로그램 구성</p> <p>①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p> <p>② 활동의 수집</p> <p>③ 지각된 효율성 평가</p> <p>④ (활동, 내용, 전략의) 선정</p> <p>⑤ 요소연구(경험적 확인)</p> <p>⑥ 프로그램의 구성</p>	<p>프로그램 구성은 요구 설문 조사와 요구 면접 조사 내용에 기초한 내용을 토대로 정립된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구성되었다. 집단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활동을 포함시켜 구성하였다.</p>
<p>3 단계 : 예비연구/장기적 효과 제고 노력</p> <p>① 예비수행</p> <p>② 다양한 평가</p> <p>③ 모형의 재검토</p> <p>④ 기준연구분석</p> <p>⑤ 수정된 모형 확인분석</p>	<p>구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예비수행을 실시한 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수정된 부분은 120분에서 90분으로 집단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신체활동이 다양하게 투입되었고, 찰흙, 풍선, 도화지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측면들로 수정되었다.</p>
<p>4 단계 : 프로그램의 실시와 개선</p> <p>① 프로그램 실시</p> <p>② 다양한 평가</p> <p>③ 매개변인의 계속적 수정</p> <p>④ (활동, 내용, 전략의)수정</p>	<p>200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집단상담자 5명이 7개 컴퓨터 기관에 방문하여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간에 탈락한 참여자를 배제하여 최종 5개 컴퓨터 31명이 참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p>

그림 2.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절차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쉼터에 거주하는 14-19세의 남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 면접을 통해 가정학대 여부를 확인 한 후,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 쉼터의 40명이 참여하였으나 중도 탈락자를 배제하여 5개 쉼터 31명의 집단원(남자 12명, 여자 19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통제집단은 전국 8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 32명(남자 14명, 여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무처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담 진행자

본 프로그램 진행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다. 진행자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박사 과정생 2명, 석사 졸업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지침서를 만들어 집단상담 진행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매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진행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 진행시 유의점, 준비물을 검토하였고, 매회기 후 연구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자로부터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회기 과정상의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였다.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의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연구자가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며, 상담심리전문가 2인 자문을 받았다. 참가자가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조력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전체 구성은 표 1과 같이 총 8회기로 구성되었다. 1회기는 도입단계로 관계형성 단계이며, 2-7회기는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여 표현하는 단계이며, 8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프로그램 회기 내용

1회기는 관계성을 형성하며 친밀감을 갖도록 하며,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특파원 게임을 실시한다. 집단 참여자들은 동료에게 인터뷰를 실시하며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연습을 한다. 2회기는 양가감정 인식을 위한 과정이다. 집단상담자는 다양한 감정이 그려진 그림카드를 준비한 후, 술래에게만 감정카드 한 장을 보여주면 술래는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나머지 집단 참여자들은 술래가 표현한 감정을 같이 맞춰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찰흙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3회기는 분노 감정 이해를 위한 과정이다. 화 날 때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O, X 퀴즈를 실시하며 자신의 분노 행동을 점검해본다. 오답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분노 감정과 행동을 점검해본다. 4회기는 분노 감정 표출 과정으로 참여자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양 만큼 풍선을 크게 분다. 풍선 크기로 분노 감정의

표 1.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안

회기	주제 및 내용	목적	목표
1	프로그램 안내 및 친밀감 형성하기 - 별칭 짓기 - 특과원게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치료 관계 형성
2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 감정카드 게임 - 찰흙을 통해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 인식된 감정 찰흙으로 표현하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껴본다.	양가 감정 인식
3	화난 감정 인식하기 - 바람직한 행동 O, X퀴즈 - 화나는 상황 역할극 - 적절한 대안 찾기	화난 감정을 표현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공감 받고 위로 받는다.	분노 감정 이해
4	속상한 맘 표현하기 - 속상한 감정만큼 풍선 불기 - 속상하게 한 사람을 풍선에 그리기 - 풍선에게 이야기하기	속상한 마음을 느껴보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감정을 표출한다.	분노 감정 표출
5	가족과의 기억 표현하기 - 가정에서 힘들었던 기억 그리기 - 가정에서 따뜻했던 기억 그리기	가정에서 힘들었던 기억과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껴보고 표현 한다	우울감 감소
6	나에게 맞는 화 참기 - 이완훈련 - 주장적 표현 훈련 및 역할극	화날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공격성 감소
7	나에 대한 긍정적 상 만들기 - 브로드웨이의 손 만들기 - 친구가 본 긍정적인 모습 듣기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	자아 존중감 향상
8	미래 계획하기 - 나의 소망 이야기하기 - 칭찬세례	소망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생각해보고 계획해본다.	희망 고취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은 후,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5회기는 우울감 감소를 위한 과정으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긍정적인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가족에 대해 갖는 복잡한 양가감정을 표현한다. 6회기는 공격성 감소를 위한 과정으로 분

노 유발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정을 폭발하기 보다는 대안 행동을 선택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7회기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생각해보기 위하여 브로드웨이 손 그리기 활동을 한다. 8회기는 희망고취 단계로 자신의 희망과 소망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삶에 머무르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이 되는데 목표를 둔다. 자신의 소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측정 도구

우울 척도

우울 질문지는 이애령(2003)이 표준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11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높은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세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상대 분노 척도

상대분노 질문지는 Spielberger(1983)가 제작한 것을 강신덕(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분노상태를 측정하며 4점 척도에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특성 분노 척도

특성분노 질문지는 Spielberger(1983)가 제작한 것을 강신덕(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좌절과 문제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경향성을 측정하며 4점 척도에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질문지 Rosenberg(1972)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공격성 척도

공격성 질문지는 이애령(2003)이 제작한 것으로 9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높은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공격성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행동과 생명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자료분석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응답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사후검사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에 따라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 영역별 사전 검사

척도별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우울감	실험	31	2.60	.78	1.03
	통제	32	2.42	.61	
공격성	실험	31	2.51	.62	-2.20
	통제	32	2.55	.70	
자존감	실험	31	2.51	.60	-1.45
	통제	32	2.74	.68	
상태분노	실험	31	2.22	1.05	1.07
	통제	32	1.95	.93	
특성분노	실험	31	2.75	.66	.13
	통제	32	2.73	.63	

표 3. 하위영역별에 대한 분석

하위영역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정평균	표준오차	
우울감	실험	2.60	.77	2.08	.59	2.06	.12	8.24*
	통제	2.42	.61	2.50	.75	2.53	.12	
공격성	실험	2.51	.62	1.97	.50	1.97	.11	7.03**
	통제	2.55	.70	2.38	.78	2.37	.11	
자아존중감	실험	2.51	.60	2.90	.39	2.92	.83	7.71*
	통제	2.74	.68	2.63	.55	2.60	.82	
상태분노	실험	2.22	1.05	1.64	.61	1.61	.11	4.79*
	통제	1.95	.93	1.92	.70	1.95	.11	
특성분노	실험	2.75	.66	2.18	.57	2.17	.10	12.75**
	통제	2.71	.62	2.50	.66	2.50	.10	

* $p < .05$, ** $p < .01$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t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에 의하면,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한 공분산 분석 결과, 처치여부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영향을 제거한 공분산분석 결과 처치여부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우울감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24, p < .05$). 공격성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한 공분산분석 결과 처치여부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03, p < .01$). 자아존중감도 공분산분석 결과 처치여부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71, p < .05$).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도 처치여부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상태분노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79, p < .05$). 실험집단의 특성분노의 주효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2.75, p < .01$).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모든 하위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 효과 검증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억눌린 마음을 인식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김창대(2002)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창진(1994), 박인우(1996), Sussman(2001)의 모형은 집단상담 현장에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반해 김창대(2002)의 모형은 각 모형들을 참조로 장점들을 통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개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형으로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채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상정하였다. 단계 1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단계 2에서는 '단계 1'의 구성내용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단계 3에서는 예비연구 실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단계 4는 최종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

라 구성된 프로그램은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적합하게 재구성 되었다고 판단된다.

프로그램 효과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억압되고 억제된 복합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우울감, 공격성, 자아존중감, 상태분노, 특성분노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은 우울감, 공격성, 상태분노, 특성분노 정도가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 정도는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실시가 구체적으로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프로그램이 정서조절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상태분노 수준과 특성분노 수준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분노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이론가들이 억압된 분노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개인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병들게 하고(강신덕, 1997; Bry, 1976),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노는 자기 자신을 더 잘 느끼도록 하여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Lazarus(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며, 강신덕(1997)의 연구에서도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가 감소되고 조절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우울감 수준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대로 인한 분노가 내면화되면서 자녀가 우울 성향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재엽, 1998; 조옥자, 현온강, 2005)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집단상담 실시 후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우애령(1994)과 Carla, Michael, Dean, Benjamin, Heidi(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공격성 수준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

년들의 공격성 정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공격성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김재엽, 송아영, 2007; 김정란, 2003)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집단상담 개입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종승과 한혜형(2000), 박정순과 김춘경(2000)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넷째,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의미 있게 증가되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피해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는 Gill과 Pierce(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대 피해 청소년들은 학대로 인해 무가치감, 부정적 자기지각을 가지는 것(Doge, Bate & Pettit, 1990)으로 나타났으나, May와 Housley(1996)의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존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후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이 정서 조절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충동성과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가정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보여준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이 제기되었다. 정서조절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3회기의 화난 감정 인식하기와 6회기 나에게 맞는 화 참기는 분노감정에 대한 부분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분노감정 이해와 공격성 감소를 위해 기획된 부분이지만, 다른 구성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재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 효과는 주로 참여자의 자기 보고에 국한하였다. 정서적인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참여자의 자기보고만이 아니라 연구자 및 참여자 주변 사람들의 관찰도 포함시켜 살펴본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찰자를 포함시키지 못해 참여자의 자기 보고에만 치우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연구에 관찰자도 포함시켜 살펴본다면 더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조절 측면이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나 양육자의 참여 과정이 포함되면 바람직하나, 본 프로그램은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따라서 학대 피해 자녀가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조절 능력을 습득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양육자의 학대가 반복되면 학대 피해 자녀의 정서적 억압이 반복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양육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김연옥, 박인아 (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은경(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재엽, 송아용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정규 (1998). 성피해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 김정관(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행동문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67-88.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인우 (1996). 효율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제적 모형. *지도상담*, 20, 19-40. 대구: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정순, 김춘경 (2000). 공격적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진 놀이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놀이치료연구*, 4(1), 83-101.
- 변창진 (1994). 프로그램 개발: *홍익출판사*.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울 YMCA 청소년쉼터 (1997). 청소년의 가출과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 손경숙(2007).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아내구타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6, 76-85.
- 양혜원 (2002). 아내구타 노출 아동의 적응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애령 (199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 신호식, 김효심 (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9-39.
-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숙영 (2003). 국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현황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요인. *상담학연구*, 4(1), 68-83.
- 이에령 (2003).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승, 한혜형 (2000).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상담의 효과. *교육학연구*, 38(4), 87-100.
- 이혜련, 최보가 (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 75-85.
- 전귀연, 배문조(2001). 가출행동 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특성비교. *한국가족복지학*, 6(1), 107-125.
- 정혜경, 안옥희(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조옥자, 현온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 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 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한상철, 이수연(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Blo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s. *Child Development*, 72(2), 549-565.
- Bridge, L. J., Denham, S. A., & Ganiban, J. M. (2004). Definitional issues in emotion reach. *Child Development*, 75, 340-345.
-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the lasting effects*. Newbury Park, CA: Sage.
- Bry, A. (1976). *How to get angry without feeling guilty*. New York: Viking.
- Carla, K. D., Michael, A., Dean, G. K., Benjamin, E. S., & Heidi, S. R. (2005). Child maltreatment in depressed adolescents: Differences in symptomatology based on history of abuse. *Child Maltreatment*, 10(1), 37-48.
- Caspi, A., & Moffit, T. E. (1993). When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A paradoxical theory of personality coherence. *Psychological Inquiry*, 4, 247-27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 in the cycle of violence(how child abused affects later aggressive behavior). *Science*, 25(4), 1678-1684.
- Gill, R., & Pierce. O'Carroll (2004). Cognitive behavioral psychotherapy intervention in childhood sexual abuse: Identifying new directions from the literature. *Child Abuse Review*, 13, 51-64.
- Grus, C. L. (2003). Child abuse: correl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s. *Journal of Development & Behavior Pediatrics*. 24(4), 296-298.
- Hartman, C., Burgess, A., & McCormack, A. (1987). Pathways and cycles of runaways: A model for understanding repetitive runaway behavior.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8(2), 292-299.
- Hemenway, D., Solnick, S., & Carter, J. (1994). Child-rearing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18, 1011-1020.
- Homer, L. E. (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 473-479.
- King, L. A., &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 131-150.
- Kriseten, W, S., Jennifer, S., Daphne, K., & Molly, C. (2007).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 Neglect*, 31(5), 517-530.
- Kurtz, P. D., Kurtz, G. L., & Jarvis, S. V. (1991). Problem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 543-555.
- Larson, J. D. (1992).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techniques through the think first curriculum. *Journal of Offender*

- Rehabilitation*, 18(1), 101-117.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w, B., & Bert, B. (2001). Abusive home environments as predictors of poor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195-217.
- Lindsey, W. E., Kurtz, P. D., Jarvis, S., Williams, R. N., & Nackerud, L. (2000). How runaway and homeless youth navigate troubled waters: Personal strengths and resourc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2), 115-141.
- MacMillan, H. L., Fleming, J. E., Streiner, D. L., Lin, E., Boyle, M. H., Duku, E. K., Jamieson, E., Walsh, C. A., Wong, M. Y., & Beardslee, W. R. (2001). Childhood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878-1883.
- Martinez, R. J. (2006). Understanding runaway tee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Nursing*, 19(2), 77-88.
- May, M., Housley, W. (1996).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on the self-esteem of sexually abused female adolescents. *Guidance & Counselling*, 11(4), 38-50.
-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 433-442.
- Molnar, E. B., Shade, B. S., Kral, H. A., Booth, E. R., & Watters, K. J. (1998). Suicidal behavior and sexual / physical abuse among street youth. *Child Abuse and Neglect*, 22(3), 213-222.
- Pears, K. C., & Capaldi, D. M.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a two-generational prospective study of an at-risk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5(11), 1439-1461.
- Renner, L. M., & Slack, K. S.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Understanding intra - an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Child Abuse & Neglect*, 30(6), 599-617.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Sarr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cherer, K. R., Wallbott, H. G., & Schmitterfield, A. B. (1986). *Experiencing emotion: A cross-cultural stud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Slesnick, N., Bartle-Haring, S., & Gangamma, R. (2006). Predictors of substance use and family therapy outcome among psychically and sexually abuse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3), 261-281.
- Sullivan, M. P., & Knutson, F. J. (2000). The prevalence of disabilities and maltreatment

- among runaway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4(10), 1275-1288.
- Sussman, S. (2001). *Handbook of program development for health behavior research &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 Tyler, A. K., & Cauce, M. R. (2002). Perpetrators of early physical and sexual abus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6(12), 1261-1274.
- Welsh, L. A., Archambault, F. X., Janus, M. D. & Brown, S. W. (1995). *Running for their lives*. N. Y.: Garland Publishing.
- Wise, L. A., Zierler, S., Krieger, N., & Harlow, B. L. (2001). Adult onse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relation to early life violent victimization: A case-control study, *Lancet*, 358, 881-887.
- Yoder, K. A., Hoyt, D. R. & Whitebeck, L. B. (2003). Gang involvement and membership among homeless and runaway youth. *Youth and Society*, 34(4), 441-467.

원 고 접 수 일 : 2008. 9.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2. 29
게 재 결 정 일 : 2009. 2. 9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Familial Abused Runaway Youths

Eun Min Park

Bong 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nd develop the emotional 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familial abused runaway youth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is study followed Kim Changdae's (2002)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models.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independent t-test and conducted the ancov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emotional 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rticipant group in the depression, aggression, self-esteem, state anger and trait anger but didn't show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rol group. Suggestions based on this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runaway, familial abuse, emotional regulation, group counseling